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297호 【루계 제24345호】 주체102(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마식령속도》창조로 올해를 떳떳이 총화할수 있게 분발하고 또 분발하자

인민소비품생산기지들에서 증산의 동음 세차게 울린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경공업부문 공장들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경공업부문의 령도업적단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기세좋게 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도 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써 마련해놓으신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성, 식료일용공업성, 잠업비단지도국의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대중의 앙양된 생산열의에 맞게 년초부터 경제작전과 생산지도를 치밀하게 짜고들어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언제나 들끓는 현실에 몸을 푹 잠그고 제기된 문제, 걸린 문제를 도맡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생산자대중을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령도업적단위들이 모든 면에서 앞장서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각지 령도업적단위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방직공업관리국아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9월방직공장에서 10월에 들어와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일반천생산을 부쩍 늘이고있다.

뜻깊은 10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은 충성으로 가슴 불태우며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터에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을 안고 인견천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설비들에 정통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한m의 천이라도 더 맵시있게 짜내여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숨은 노력을 바쳐가고있다.

직포종합직장, 방적종합직장, 편직사직장 등 공장의 모든 직장,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기대마다 만부하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며 뜻깊은 10월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편직공업관리국아래 선교편직공장, 강계편직공장, 평양양말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편직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평양방직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고 나라의 방직공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성능높은 방직설비들과 부속품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잠업비단지도국아래 령도업적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더 잘 살려 인민들에게 질좋은 비단천을 보내주자면 선행공정인 비단실생산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올해에 매달, 매 분기 공장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박천견직공장, 녕변견직공장들에서 다색단, 비로도, 마안산담요 등 질좋은 경공업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례지게 하고있다. 박천견직공장의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첨단과학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빛나게 관철해나가고있다.

현대적인 질좋은 비단천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는 녕변견직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당의 크나큰 신임에 더 높은 비단천생산성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각지 령도업적단위 식료공장, 일용품공장들에서도 올해에 매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였다.

선흥식료공장에서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우리의 경공업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관철해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틀어쥐고 경제관리를 참신하게 진행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면서도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질좋은 갖가지 식료품을 짱짱 생산하여 인민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호평을 받고있다.

롱악산샘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장수샘물을 인민들에게 떨구지 않고 보장해주는데서 기쁨과 보람을 찾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애국의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수지연필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들에서도 질경쟁과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고 선진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벅찬 투쟁은 평양식료련합기업소아래 령도업적단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련합기업소아래 평양곡산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대동강식료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에서도 생산설비와 공정의 현대화와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영양가높은 당과류와 청량음료생산을 늘여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나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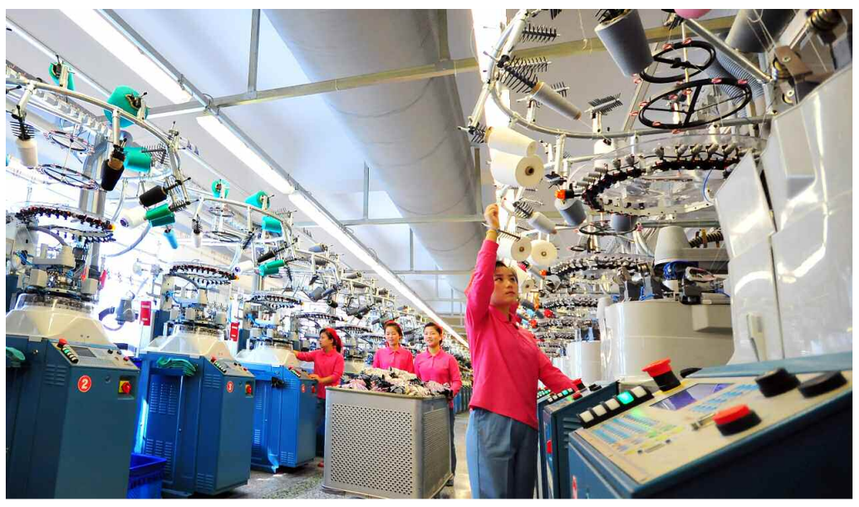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높이 평가해주신 크나큰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간장, 된장을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높은 기초식품생산을 부쩍 늘여 수도근로자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요구대로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정방산종합식료공장에서 경공업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지방의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활성화해나감으로써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해제끼고있다.

경성도자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에서 대주면 더 좋고 안대주어도 제힘으로 해낸다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지니고 자체의 힘으로 생산토대를 마련하고 두달이상 앞당겨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회령기초식품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창성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공업발전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간다는 자각을 가지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질좋은 기초식품과 식료가공품생산을 부쩍 늘이였다.

본사기자 명흥숙



질좋은 양말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린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낟알털기전투에서 높은 실적 기록

서해벌방농촌들에서

서해벌방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낟알털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서해벌방농촌들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낟알털기실적은 3배이상 뛰여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로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며 모든 운반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낟알털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이 들끓는 협동벌에 나가 모든 력량을 벼단실어들이기와 낟알털기에 집중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황해남도의 일군들은 낟알털기를 제때에 끝낼수 있게 력량을 집중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매일 많은 량의 벼를 털어낼수 있도록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신천, 연안, 재령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낟알털기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은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벼단실어들이기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탈곡기와 이동식탈곡기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모든 농장들에서 벼가을을 와닥닥 끝낸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벼단실어들이기를 앞세우면서 낟알털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이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23일현재 벼단실어들이기는 90%이상, 낟알털기는 60%이상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남도에서 벼단꺼들이기와 낟알털기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일군들이 낟알털기전투의 앞장에서 걸린 고리들을 풀어나가고있다.

문덕군과 대동군의 일군들은 낟알털기가 벌어지는 현장에 나가 농장, 작업반들에서 교대별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더 많은 낟알을 털어내게 하고있다. 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일 한마음안고 매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털어내여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정주시와 곽산, 룡천, 염주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낟알털기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운전수들은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벼단운반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은 한알의 낟알이라도 허실될세라 벼단실어들이기와 낟알털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분발하여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산군과 은파군의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달리고있다. 농장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교대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벼단을 실어들이는 족족 털어내게 하고있다.

평양시와 남포시의 농촌들에서도 모든 힘을 낟알털기에 집중하여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전력생산성과 계속 확대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전력증산성과로 믿음직하게 받들어가고있는 전국각지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높이 세운 올해전투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일터마다에서 완강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3.4분기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이들은 뜻깊은 10월에도 총진군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0%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굴지의 동력기지인 수풍발전소와 허천강발전소가 기운차게 용을 쓰며 돌아가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기상관측자료와 물확보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에 맞게 생산 및 정비보수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기동성있게 하고있다.

매달 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수풍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관리를 깐지게 하면서 높은 수위, 높은 효률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매일 전력생산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수차바가지들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있는 허천강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수리기지들을 활성화하면서 증산돌격전을 치렬하게 벌려 일별계획을 104%이상으로 해제끼고있다.

부전강발전소와 장자강발전소, 위원발전소에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이곳 발전소들의 로동계급은 예방보수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발전기마다 만부하의 동음을 힘차게 울림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전력생산량을 1.1배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있다.

부전강발전소의 일군들은 도중취수구들에 대한 정리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한방울의 물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장자강발전소의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발전설비들에 앞선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누가 보건말건 전력생산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위원발전소의 기능공들도 업간점검과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설비관리운영과 정비보수를 실속있게 하면서 증산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높이 세운 3.4분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태천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이달에도 충천한 기세로 전력생산량을 부단히 늘이고있다.

대동강발전소와 남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합리적인 부하분배를 실현하면서 10월 전력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희천발전소와 삼수발전소, 례성강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와 금야강군민발전소에서도 생산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련일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과학기술로 농업생산을 적극 추동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될데 대한 우리 당의 높은 뜻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농장벌마다에서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춘의 포부와 열정이 넘쳐나고 새것에 민감하며 진취성이 강한 3대혁명소조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킬 때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주인된 자각을 안고 온 한해 과학농사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왔다.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모내기와 김매기를 비롯한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작물비배관리를 철저히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어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효능높은 살초제가 현실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좋은 경험들을 쌓았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천리마구역 교창협동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해당 단위의 자연기후조건과 토양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알맞는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재령군, 안악군, 연안군, 은천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농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올해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맡아해제끼였다.

연안군 개안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장의 실정에 맞게 식물성농약을 많이 생산하여 병해충에 의한 논벼피해를 결정적으로 줄이였으며 재령군 재천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기계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지력을 높이고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게 하였다.

숙천군, 문덕군을 비롯한 열두삼천리벌의 농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과 기후조건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논밭갈이,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비료주기 등 여러 영농공정들이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원만히 진행되게 하였다.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도 실적을 올려 농업근로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형제산구역, 력포구역, 사동구역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농장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새로운 장치를 갖춘 들쳐갈이보습을 개발하고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적기에 시비하도록 함으로써 알곡 및 남새농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각지 뜨락또르부속품공장, 농기계공장, 농기계작업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명전위로서의 역할을 높인 결과 뜨락또르부속품생산과 성능높은 종합탈곡기, 농기계부속품, 농기구생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천리마》호뜨락또르의 어느 한 치차생산을 위한 새로운 조형방법을 확립하여 소재합격률과 부속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속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런 자랑찬 성과들은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힘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굴진을 앞세워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에서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백만의 석탄을 확보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굴진과 박로를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참모부의 일군들은 탄광별, 갱별, 소대별로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탄광들에 나가 앞선 발파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굴진속도를 종전보다 1.3배로 높이는 혁신을 이룩하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착암기, 뽐프, 동발나무, 소철레루 등 굴진에 필요한 설비, 자재,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선행시켜 더 많은 탄밭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의 고속도굴진소대원들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채굴조건이 좋은 탄밭을 더 많이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앞선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고있다.

청년갱 리응산고속도굴진소대, 강성갱 김영택고속도굴진소대, 9갱 최일수고속도굴진소대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교대별굴진계획을 1.3배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앞선 굴진공들의 좋은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총화와 평가사업을 정확히 함으로써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천성청년탄광에서 고속도굴진을 힘있게 내밀어 매일 굴진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별, 소대별고속도굴진경쟁을 조직하고 단위들에 나가 굴진공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들이대는 한편 굴진공들과 함께 착암도 하고 운반도 하면서 굴진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그리하여 7갱 최순일고속도굴진소대, 9갱 려성준고속도굴진소대, 10갱 현원봉고속도굴진소대에서 자기 앞에 맡겨진 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하면서도 다음교대를 도와주기 위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령대탄광의 고속도굴진소대원들도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유망한 예비탄밭을 더 많이 마련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고속도굴진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설비, 자재,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굴진계획수행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는 1갱 손성호고속도굴진소대에서는 암질에 따르는 합리적인 발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굴진속도를 높여나가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을 늘여나간다.
—2.8직동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천만의 심장을 울려주는 우리 당의 목소리

지금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미제와 괴뢰패당들의 발광은 계속되고있지만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는 우리 조국강토에는 위대한 사랑의 대하가 더욱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 참가하였던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세포비서 안호춘, 평양우편국 운수직장 운수작업반 당세포비서 고봉춘동무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를 써보내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활달한 필체가 다시금 쩌릿이 안겨온다.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아 정다워
그곁에 있어도 멀리에 있다 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정다워

믿음에 넘쳐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가슴에 새길수록 아 뜨거워
새벽길 걸어도 밤길을 걸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뜨거워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
꿈에도 못 잊어 영원히 못 잊어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따르리
2013.2.27
김 정 은》

어이하여 우리 인민은 사랑의 친필을 받아안던 그날의 격정을 오늘도 소중히 안고 사는것인가.

온 나라에 어머니당의 정다운 목소리가 더욱 세차게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눈물겹게 어려와서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어머니당의 정과 사랑없이 우리는 순간도 살지 못한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시련많은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력사적체험을 통하여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그렇다. 위대한 어버이가 되시여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마련하시고 이 땅우에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을 더욱 훌륭하게 꾸려주신분은 우리의 김정일동지이시다.

진정 인민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에 특기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자애로운 어버이, 희세의 정치가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지금도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노래한 〈인민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면 한평생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계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물이 나오는것을 금할수 없습니다.》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장 수십성상 우리 당을 령도하시면서 내세우신 고귀한 지침이다.

언제인가 우리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당일군입니다. 어머니당의 당일군이라는 이 고귀한 칭호에는 사람들을 어머니심정으로 대하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였지만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은 강산을 울렸다.

이런 숭고한 사랑을 지니시고 이 땅에 사는 매 인간들의 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던가.

오늘도 하많은 눈물겨운 사연들은 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군에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앞에 죄를 짓고 잘못되였다는 사람들의 가족이 수백명이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으시여 일군들에게 그 문제는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된 심중한 문제인것만큼 힘이 좀 들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끝장을 볼 때까지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나는 우리 인민들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파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제는 조선사람 100명을 죽이면 거기에는 한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승냥이와 같은 강도적인 론리를 들고나오면서 숱한 조선사람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천만사람을 믿고 품에 안으면 한놈의 나쁜 놈도 열씬하지 못한다는 믿음의 철학을 주장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런 믿음어린 조치에 의하여 전쟁시기 내무원으로 가장한 적간첩일당이 그곳에서 사람들속에 불화와 반목을 조성할 목적밑에 수많은 농촌핵심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교묘하게 살해하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쟁시기 그곳에서 인민앞에 죄를 짓고 죽었다던 사람들을 모두 원쑤놈들에게 피살된 애국렬사로 선포하고 그 가족들에게 한사람도 빠짐없이 렬사증을 수여하도록 할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하여 당의 두리에서 수많은 군중을 뭐여내려고 악랄하게 책동했던 원쑤들의 만행은 위대한 어버이의 하늘같은 믿음에 의하여 낱낱이 까밝혀지게 되였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여름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뜻밖의 일로 한 기술자가 영웅칭호를 수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그의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하신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안고있던 본인은 물론 누구나의 가슴마다에서 터져나온 이 격정 - 그것은 어머니!라고 부르며 위대한 태양의 품에 더욱 안겨드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순결한 웨침이였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이였다.

진정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을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 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위대한 당의 품은 영원한 태양의 품이다.

이런 뜨거운 정과 사랑으로 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아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

우리는 혁명가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인간을 알고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주시며 언제나 열화같은 정의 세계에 사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눈물 또한 얼마나 많으시였던가.

사랑하는 전사를 잃을 때면 그 슬픔을 가실길 없으시여 눈물을 흘리시였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보시면서는 그 정상이 가슴에 맺혀 눈물을 머금으시였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다정다감하며 깊은 감명을 받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에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사람은 눈물이 많은것이 좋습니다. 차고 쌀쌀한 사람은 울라고 해도 눈물 한방울 떨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줄 아는 영웅이 진짜영웅입니다. …

사람들이여, 물어보자.

인간의 운명,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어버이장군님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였던가.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인정이 많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절세의 위인이 과연 그 어느 시대에 있어보았던가.

그렇다. 그이의 눈물은 이 땅의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고 보살피는 위대한 어버이의 한없이 순결하고 뜨거운 사랑이고 정이였다.

하기에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인정미는 어머니당의 젖줄기로 인민의 가슴을 언제나 후덥게 적셔주었다.

주체87(1998)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평양으로 떠나실 때 있은 일이다.

눈보라치는 자강땅을 찾으시여 당을 받들어 그동안 많은 일을 한 한 일군에게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헤여질 시각이 되자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몸을 잘 돌보아야 하겠다고 그의 건강을 염려해주시며 뜨겁게 손잡아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듯 다시 승강대로 나오시여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인정세계에 접할수록 따뜻한 잠자리, 변변한 식사 한끼 대접해드리지 못한 가슴저미는 아픔이 치밀어올라 일군은 《장군님! 먼길에 조심해 다녀가십시오.》라고 눈물의 인사를 거듭드리였다.

잠시후 렬차가 떠나자 그 일군은 어버이장군님과 떨어지기 아쉬워 급기야 승용차를 타고 눈판, 얼음판 가림없이 전속으로 따라섰다.

이때 전사에 대한 추억에 잠겨 차창가에 시선을 주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급히 따라오는 그 일군의 차를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걱정어린 어조로 저러다 눈길에 사고라도 내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래도 우리가 더 빨리 달려야 할것 같다고 뜨겁게 이르시였다. …

이것이 수령과 일군들간에 오고간 위대한 사랑의 화폭이라면 장군님과 로동계급사이에는 과연 어떤 따뜻한 정이 흘렀던가.

주체95(2006)년 12월초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에서 어느 한 공장 종업원들이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였다.

며칠전 그이께서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 그곳 공장에서 얼마간의 경질유리그릇을 가져오게 하시고 일군을 통해 친히 그릇값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다.

그러자 공장의 종업원들이 장군님과 한피줄로 이어진 우리 로동계급의 량심은 그것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세상에 자기를 키워 내세워주신 아버지에게서 그릇값을 받는 자식이 있는가고 간절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올렸던것이다. 글줄마다에서 울려오는 로동계급의 불같은 심장의 목소리를 읽어가시는 그이의 눈가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 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나 그릇값을 다시 내려보내니 정확히 장부를 정리하고 쓰는것이 좋겠다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정녕 인민을 위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다심한 사랑과 믿음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당을 끝없이 신뢰하며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뗘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위대한 기적의 힘을 낳게 하였다.

정은 가를수 없고 피줄은 속일수 없다.

우리의 심장속에 주체의 피가 흐르게 하여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뜨거운 정을 주신 어버이장군님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가도 언제나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신다.

그 어디를 찾으시여서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면 우리 장군님의 다정하신 그 음성은 오늘도 온 나라에 세차게 울리고있다.

희망찬 올해 뜻깊은 신년사에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인민사랑이 넘치는 구호를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만사람을 울리는 격동적인 결론을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아직도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라는 인상깊은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포비서들입니다. …

올해 3월말에는 우리 당세포비서들이 강원땅의 보안원이며 당세포비서였던 김금수영웅처럼 투쟁의 기수, 당정책관철의 척후병, 당원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시며 조선로동당 강원도인민보안국 세포비서회의 참가자들이 삼가 올린 편지에 가슴뜨거운 친필을 써보내주신 우리 원수님,

당원들의 심장속에 불씨를 지펴주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여야 합니다라고 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에 담겨진 깊은 뜻은 모두의 심금을 울리였다.

정녕 사랑의 친필을 받아안을때마다 우리 인민이 가슴벅차게 받아안은것은 무엇이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정과 사랑이였고 우리에게는 어머니당이 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였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으로 밖에 달리 될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였다.

그렇다. 위대한 태양을 모신 조국은 언제나 강하며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불타는 사상감정으로 충만된 천만군민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는 어머니당에 끝없이 충실할것이며 우리 당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를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위대한 장군님께서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의 나날에 남기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가고있다. -장산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선군혁명력사의 갈피에서

중대는 정든 나의 집

봄향기가 한껏 넘쳐나던 어느해 5월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고있는 한 인민군부대의 중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잘 꾸렸다고 거듭 치하해주시면서 이 중대에서처럼 사상교양사업과 병영관리를 잘하면 중대는 나의 집 정든 나의 집이라는 노래에도 있듯이 군인들이 중대에 정을 붙이고 군사복무를 잘할수 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중대지휘관들에게 정말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때 후더워지는 심정을 금치 못하고있던 부대의 한 지휘관이 중대가 이렇게 꾸려지게 된데는 얼마전에 조동되여간 전 중대정치지도원의 숨은 노력이 많이 깃들어있다는데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였다.

사연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그 동무는 군인생활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다가 다른데로 소환되였다고, 사람들의 추억에 남는 그런 일군이 좋은 사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군인대중이 잊지 못해하는 진짜배기일군을 또 한사람 알게 되신 크나큰 기쁨이 어려있었다.

뜻깊은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동무를 내세워주고 단단히 표창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그렇다.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한몸을 내대고 헌신하는 지휘관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중대들은 병사들의 정든 집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랑만에 넘친 병사들의 모습

주체91(2002)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한 녀성중대군인들이 준비한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실 때였다.

중대의 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된 커다란 영광과 행복으로 가슴들먹이며 청춘시절을 총과 함께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끝없는 영예와 랑만넘친 모습들을 자랑스럽게 펼쳐보이였다.

종목이 바뀔 때마다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며 공연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군인들이 무용을 흥이 나게 아주 잘한다고 하시며 정말 훈련과 군무생활의 보람찬 병사시절이 실감있게 형상되였다고, 우리 병사들이 아주 랑만적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공연이 끝난 후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중대군인들이 공연을 정말 잘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단위들을 련속 돌아보다나니 좀 힘들었댔는데 피곤이 쭉 풀린다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기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집단주의와 동지애가 키워지는 요람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중대병실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아담하고 정갈하게 꾸려진 병실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군인들이 방송을 정상적으로 듣는가, 신문, 잡지를 보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부대지휘관이 올리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전방초소를 지켜선 군인들인것만큼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문화정서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윽고 군인들의 문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지휘관들에게 병실은 집단주의와 동지애가 키워지는 요람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순간 부대지휘관들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우리 군인들이 랑만에 넘쳐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일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부대지휘관들의 눈가에서는 맑은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병실은 집단주의와 동지애가 키워지는 요람

그때까지만 하여도 부대지휘관들과 일군들은 병실이라고 하면 흔히 군인들이 생활하는 장소로만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이 자기 집 아래목처럼 여기며 상하가 친형제, 한가정이 되여 생활하는 병실을 단순한 생활장소가 아니라 군인들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키우며 혁명적인 사랑과 동지애로 결합시키는 중요한 교양거점의 하나로 보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부대지휘관들은 인민군대가 집단주의가 강하고 동지애가 뜨거우며 혁명성이 강한것은 바로 병실이라는 집단주의와 동지애의 요람에서 성장하였기때문이라는것을 다시금 심장깊이 느끼게 되였다.

본사기자 강 철 남

병사가 바라보는 조국의 푸른 하늘

우리는 얼마전 적은 로력이나마 바치고싶어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찾았었다. 그때 우리가 만났던 한 군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 간 밤도 지새운 병사는 이마에 흐르는 땀줄기를 닦으며 동터오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것이였다.

병사가 바라보는 조국의 푸른 하늘!

그 병사만이 아닌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서 조국의 푸른 하늘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그들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두고 자기가 지켜선 조국이고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이며 찬란한 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조국의 눈빛이라고 말한다.

어찌하여 조국의 하늘을 우리 군인들은 그토록 사랑하는것이며 뜨겁게 안아보는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옳바른 령도의 결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3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해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해병들의 군무생활정형을 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병실에도 들리시였다.

그이의 뒤를 따라 병실에 들어선 일군들은 아늑하고 깨끗한 침실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쯘하게 갖추어진 생활비품들과 일매지게 정돈되여있는 침구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해빛이 잘 들고 조용한 여기서 한잠 푹 자고나면 기운이 부쩍 솟겠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잠시후 다시금 침실을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해병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침대와 창문을 번갈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침대를 잘못 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벽을 마주하고 가지런히 놓인 침대들을 살펴보았지만 무엇이 잘못되였는지 일군들은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러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침대가 잘못 놓였다고 하는가, 보라, 침대머리가 창문쪽에 놓여있다, 그러니 해병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람벽부터 보게 될것이 아닌가고 말씀하시였다.

병사들이 눈을 뜨면 조국의 밝아오는 하늘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기분도 좋고 아름다운 아침노을을 바라보면서 조국산천에 대한 사랑과 조국을 지켜싸우는 병사의 삶에 대한 긍지도 가슴깊이 간직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은 숭엄한 격정에 휩싸였다.

해병들에게는 밝고 시원한 조국의 하늘이 제일 그리울수 있으니 머리가 벽쪽에 가도록 침대를 돌려놓아 눈을 뜨면 하늘부터 보게 해야 한다고 다정히 이르시는 우리 장군님의 자애에 넘치신 그 음성이 모두의 가슴마다에 따사로이 흘러들었다.

병사들을 나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고 선군혁명동지로 산악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침대의 놓임새 하나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신것이다.

하나의 자그마한 현상을 두고도 그것을 병사들의 애국주의교양과 결부하여보시는 우리 장군님,

병사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조국의 밝아오는 하늘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병사들을 삶과 위훈에로 떠밀어주는 조국애,

하기에 조국애가 없는 병사의 손에 쥐여진 총은 막대기만 못하다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늘 가르쳐주시지 않았던가.

조국의 아름다움을 느낄줄 모르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지닐줄 모르는 병사는 복무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을수 없다.

병사는 조국의 푸른 하늘속에서 나서자란 고향과 부모형제를 떠올려본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근무의 밤이면 그 하늘에서 못 잊을 추억의 물결이 실어다주는 다정한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당과 조국앞에, 고향앞에 부끄럼없이 떳떳하였던가 자신을 세워보기도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떳떳이 바라볼 권리가 없다고 병사들이 심장의 토로를 하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우리 군인들이 조국의 맑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처럼 무한하고 그 하늘처럼 아름답고 그 하늘처럼 높은 애국의 뜻과 의지를 더욱 가다듬을수 있게 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서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벅찬 투쟁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숭고한 조국애는 영원한 태양의 그 품에서 자라나고 꽃펴난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철산봉에서 진행된 경기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던 어느해에 있은 일이다.

무산의 철산봉마루에서 대규모의 회전식착정기굴뚫기경기가 진행되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이 만든 회전식착정기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여러가지 형식의 회전식착정기들간의 경기였다.

국제착정기경기라고도 할수 있는 이 경기의 승부가 어떻게 될것인가.

온 나라의 관심속에 진행된 경기에서는 드디여 락원에서 만든 착정기의 위력이 단연 1등으로 평가되였다.

사람들에게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신심을 안겨준 류다른 굴뚫기경기, 그 경기가 과연 어떻게 되여 진행되게 되였는지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때 다 알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힘으로 사는 사람은 흥하고 남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망한다.》

그무렵 무산광산(당시)에서는 회전식착정기로 굳은 암석층에 구멍을 뚫는 공정이 걸려 더 많은 쇠돌을 캐내지 못하고있었다.

일부 일군들은 락원의 착정기를 가지고서는 생산을 늘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체로 착정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대신 다른 나라에서 사다쓸것만 생각하고있었다.

현지지도과정에 이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까지 이곳 광산에서 굴뚫기를 앞세우지 못한 근본원인이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기계설비를 넘겨다보면서 그것이 없이는 결린 문제를 풀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에 있다는것을 즉시에 간파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전식착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지 다른 나라에서 사다쓸 내기만 하면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기업소에 필요한 회전식착정기는 락원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락원로동계급에게 성능높은 착정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자고, 그러면 그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을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은 락원로동계급으로 하여금 기적을 낳게 하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락원기계공장(당시)에서는 성능높은 새로운 회전식착정기들이 생산되여나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있던 일부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회전식착정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을수 있다고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산광산에서 회전식착정기굴뚫기경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경기는 시작부터 사람들을 긴장시키였다.

처음 얼마동안은 기록이 어슷비슷 한것 같더니 날이 감에 따라 점점 차이가 생겼고 경기마감무렵에는 그 승부가 확연하게 되였다.

경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해 가을 락원기계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처음에 만들었던 회전식착정기의 일부 부속품들의 결함을 퇴치하였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착정기공업은 우리 나라에서 락원사람들이 처음으로 개척한것인데 왜 결함이 없겠는가, 그 결함은 옥에 티나 같다, 티를 없애면 옥은 옥대로 빛나기마련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한 일군이 이번 회전식착정기굴뚫기경기에서 락원의 착정기가 단연 1등을 하고 그 과정에 착정기의 생산성이 4~5배로 올라갔다고 보고드리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것 보시오, 결국 제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남을 쳐다보는 사람들과의 씨름에서 자력갱생편이 단연코 이겼단 말이요라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철산봉에서의 경기!

그것은 남의것만을 우선시하던 사람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종지부를 찍고 오직 자기의 힘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남의것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위력을 발휘하자.

이것이 철산봉에서의 굴뚫기경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찾은 교훈이였다.

이 일이 있은 후 무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미진했던 계획까지 봉창하여 광산앞에 나선 쇠돌생산과제를 빛나게 완수하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천만군민으로 하여금 자력갱생하는 길에 언제나 승리가 있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자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 창조와 변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간다

강한 실천력은 성과의 근본 담보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은 들끓는 전투장에서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산 조직정치사업으로 군중을 이끌고나가야 합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는 《마식령속도》창조를 위한 당적지도에서 일군들의 실천력문제를 중시하였다.

월봉탄광의 침수되였던 채탄장들을 단 7일동안에 복구하여 생산을 추켜세울수 있게 한 사실을 놓고 말할수 있다.

침수된 채탄장들을 빠른 시일안에 복구할데 대한 문제가 당결정으로 채택된지 얼마 지나서였다. 현지에 내려갔던 당위원회책임일군은 복구전투가 일정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곳 일군들은 작업량이 방대하기때문에 한달이상 걸려야 끝낼수 있다고 하면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의 말대로 한다면 월계획을 할수 없었다. 이 사실에서 당책임일군은 아무리 조직사업이 잘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진 일군들이 강한 실천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목표를 제기일안에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로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자면 일군들이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당위원회는 침수된 채탄장들을 복구하는 과정에 일군들의 실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이끌어나갔다.

우선 당위원회 부부장이상 일군들과 행정참모부서의 과장이상 일군들로 침수된 채탄장들에 대한 분담조직을 하였다. 실지 결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풀기 위한데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주목되는 점은 행정경제일군이건, 당일군이건 정치사업을 첫 공정으로 들어쥐고 공세식으로, 화선식으로 들이대여 대중의 정신력이 《마식령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게 한것이다.

당위원회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종전처럼 막장에 내려가 로동자들을 모여놓고 해설제강을 읽어주고 사업을 포치하면서 호소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 복구전투가 벌어지는 현지에서 로동자들과 같이 고락을 함께 하면서 화선식으로 벌려나갔다.

월봉탄광 회둔갱에 내려간 책임비서 리창길동무가 정치사업을 어떻게 벌렸는가를 보기로 하자.

그는 로동자들과 함께 죽탄이 담긴 질통을 지고 달리기도 하고 동발드리기작업에도 어깨를 들이대였다. 쉴참에는 그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아 복구전투를 빨리 끝낼 방도를 놓고 론쟁을 벌리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채탄장복구를 앞당겨 끌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도 찾게 되였다. 하루도 아니고 며칠동안이나 탄광에 머물러있으면서 로동자들과 일도 함께 하고 저녁에는 혁신자들과 생활이 어려운 탄부세대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하면서 고락을 함께 하는 당책임일군의 화선식정치사업은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었다.

기업소지배인 장강훈동무를 비롯한 기업소의 모든 일군들이 7일낮, 7일밤을 복구현장에서 이렇게 보내였다.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몸을 푹 잠그고 대중의 정신력에 불을 달며 후방물자를 가지고 탄부가정들을 찾아가 진정을 쏟아붓는 일군들의 정치사업에 고무된 로동자들은 한달이상이 걸려야 할수 있다고 하던 채탄장복구를 단 7일만에 끌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하여 월계획을 수행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당위원회는 일군들에 대한 평가도 지난 시기와 달리하였다. 정치사업을 진행한 회수를 놓고 한것이 아니라 대중을 발동하여 석탄생산실적을 얼마나 높였는가를 놓고 하였다.

련합기업소기사장 김정선동무를 비롯한 행정경제일군들이 탄광기계공장에 내려가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켜 160여점의 막장소공구와 탄차바퀴, 레루못을 월봉탄광에 보내주었을 때였다.

당위원회는 현지에서 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결린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군들의 기관차적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우쳐주었다. 모든 일군들이 막장에 들어가 정치사업도 벌리고 생산지휘도 하면서 결린 문제를 풀기 위한 일에 어깨를 들이대였다. 제남탄광, 남양탄광을 비롯한 기업소안의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실적이 높아지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마식령속도》창조의 성과여부는 생산을 책임진 행정경제일군들의 실천력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경제일군들이 작전한 문제들이 하나같이 알찬 열매를 맺도록 송풍기적역할을 잘한것은 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의 하나이다.

남양탄광에 새 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도 그랬다.

탄광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석탄매장량이 풍부한 이 지역을 타고앉아야 하였다. 그래서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행정경제일군들이 힘든 일감을 도맡아안고 뛰고있었지만 수백대나 되는 전주대를 미처 보장하지 못하여 애를 먹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알게 된 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앞장에서서 대중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결심을 내리였다. 하여 형봉지구의 채벌장에서 전주대생산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혁명군가의 힘찬 노래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산판을 누벼나가는 속에 수백대의 전주대가 생산되였다.

행정경제일군들이 잡도리하고 나선 문제들이 드림없이 집행되도록 알아보고 주저앉을세라, 힘들어할세라 밀거름이 되여준 당위원회일군들의 송풍기적역할에 의하여 남양탄광에서 새 구역개발을 앞당겨 끌낼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기업소에서는 올해말까지 14개갱소의 새 구역개발을 끌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소적으로 달마다 수천t의 석탄을 더 생산할수 있다고 한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면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강한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일어나는 창조의 열풍에 뜨거운 진정속에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하며 그 들속에 맺혀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마식령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나라의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련이어 내놓고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연구사들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온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이 슴배여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에 나가있던 연구사들이 글루타민산발효시험을 앞두었던 어느날이였다.

연구사 한복남동무는 안해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집이사를 하였다는것이였다. 초급당일군과 함께 그가 속해있는 연구실의 동무들이 연구소가까이에 집을 이사시켜주고 집세간들에 대한 정리까지 말끔히 해주었다는것이였다. 안해의 말은 한복남동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가득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한 평범한 연구사를 위해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 살림집을 마련하여 이사까지 조직해준 초급당일군과 연구실의 동무들이 정말 고마웠다.

그 뜨거운 정은 한복남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켰다. 그리하여 첫 글루타민산발효시험에서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언제인가 깊은 밤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 발효공정조종을 하느라고 연구사들은 밤늦게까지 연구사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그들은 실험실문을 열고 무슨 지함인가를 안고 들어서는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분명 낮에 연구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콤퓨터를 해결해주고 연구소로 돌아갔던 초급당일군이였다.

(아니, 이 깊은 밤중에 어떻게…)

그가 웃으며 안겨준 포장된 지함을 받아든 연구사들의 의혹은 더욱 커지였다.

《어서 그걸 열어보십시오.》

순간 연구사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속에는 플라스크와 당분석시약을 비롯한 실험기구들과 시약들이 들어있었다. 연구소를 떠나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실험기구와 시약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했다.

이런 고충을 알고 또다시 밤길을 달려온 초급당일군에 대한 고마움으로 뒤를 돌아보면 연구사들은 순간 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연구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만시름이 놓인듯 초급당일군은 조용히 의자에 기대여 어느새 잠들었던것이였다.

그날 밤, 연구사들의 눈에 새겨진 초급당일군의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그대로였다.

당일군의 이런 뜨거운 진정은 집단주의불길을 안아왔다.

연구사들이 있는 현장으로 생일음식까지 준비해가지고왔던 실장 량정희동무, 연구사업에서 결린 문제를 풀어주려고 찬비내리는 밤길도 주저없이 달린 소장 김문철, 실장 문호동무들…

이렇게 과학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가 하나의 고상한 룬리로 되도록 사업을 짜고드는 초급당위원회의 옳바른 지도가 있어 미생물학연구소에는 《마식령속도》창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몰아치게 되였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사리원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서 발휘되고있는 군인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자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의도이며 결심이다.》

사리원편직공장에서 지난 몇달사이에 해놓은 일이 많다. 생산은 물론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과 후방사업에서도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성과에는 비결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6월초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받아안은 초급당위원회비서 김연수동무는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하는 과감한 공격정신이 온 공장에 차고넘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한 초급당일군은 지배인 공옥화동무와 라기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일군들부터가 신들메를 든든히 조여매고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공장에서는 공화국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돐을 맞는 올해를 뜻깊게 빛내이기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그 계획수행에서 일부 드러는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니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시간이 나는 차제로 그것을 해제끼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들의 의견은 결코 무리가 아니였다. 기능공들이 부족하고 로력이 긴장한 속에서 생산만 내밀자고 하여도 힘에 부쳤기때문이였다.

모임의 목적은 일군들의 이런 관점을 바로세워주자는데도 있었다. 모임에서는 지난 몇달동안의 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앞으로 해야 할 전투목표와 그 해결방도가 구체적으로 세워졌다. 그가운데서 중요하게 강조된것은 공장연혁소개실건설과 함께 생산은 물론 계획하였던 모든것을 동시에 내밀어보자는것이였다.

—순차적인 방법이 아니라 립체적인 방법으로!

이어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연혁소개실건설장에서 공장종업원궐기모임을 열었다.

이미 초급당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단위들에 다녀오고 공장의 실정에 맞게 연혁소개실건설터전을 잡았었다. 전경도도 큼직하게 세워놓았다. 빈틈없는 준비밑에 진행한 모임이여서 실효는 컸다.

앞으로 서게 될 연혁소개실에 자랑스러운 위훈을 새겨가자는 당일군의 호소에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호응해나섰다. 끈질기체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돌격대를 조직하여 연혁소개실건설을 힘있게 벌렸으며 한편으로는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마리수를 늘이고 공장주변과 여러곳에서 찾아낸 빈땅에 남새를 심고 가꾸어 종업원들이 그 덕을 크게 보게 하였다. 많은 면적의 잔디밭을 단숨에 조성하는 등 공장꾸리기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도록 하였다. 지배인은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생산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 구현해나갔으며 종업원들의 기능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종업원들의 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보다 심화시켰다.

당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을 비롯한 초급선전일군들을 발동하여 작업시작전과 휴식시간 등 여러 계기점마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특색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속에서는 사회주의경쟁열의도 높아졌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도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비결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립체적인 과감한 돌격전을 벌린데 있었다.

본사기자 장 철 법

9일간에 벼가을을 끝내기까지

선천군 석화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건이 불리하고 어려울때일수록 작전을 바로하고 지휘를 잘하여야 생산과 건설에서 양양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가을걷이와 관련한 군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있은 다음날이였다.

선천군 석화리당 비서는 당면한 가을걷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다그쳐 끝낼것인가를 놓고 관리위원회일군들과 마주앉아 토의를 진행하였다.

무슨 일부터 어떻게 시작할것인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관리위원장 전영선동무가 대담한 작전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농장의 로력과 룹전기재를 비롯한 력량을 총동원하여 강냉이가을을 한주일동안에 와닥닥 끝낸 다음 그 력량으로 다시 달라붙어 벼가을걷이를 9일동안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자는것이였다. 말하자면 력량집중과 섬멸전의 방식이였다.

수첩을 꺼내들고 수자를 들어가며 이야기하는 관리위원장의 말을 듣고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군적으로 논면적이 제일 많은 농장의 실정에서 지난 시기 20일동안 걸려야 하던 벼가을을 9일동안에 하자고 하니 그럴만도 하였다.

일찌기 농장에서 있어보지 못한 대담하고 통이 큰 일판이였다.

일군들의 심정을 꿰뚫어본듯 관리위원장은 마식령스키장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이번 가을걷이전투에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면 계획된 날자에 모든 일을 단숨에 해제낄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그리고는 제일 힘든 일감을 자신이 스스로 말아나섰다.

기사장 허창호동무도 자신이 탈곡기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을 가을걷이시작전 며칠사이에 끌내겠다고 하였다.

리당비서 김정국동무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관리위원장과 기사장의 모범을 따라 온 농장이 떨쳐일어나 가을걷이전투를 와닥닥 끌내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들이대였다.

다음날부터 가을걷이전투에 필요한 중소농기구준비, 운반수단들의 정비사업이 벌어지고 낟알털기를 빨리 끌내기 위한 탈곡기정비와 발동발전기를 갖추는 사업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리당일군들은 작업반부문당조직과 당세포를 발동하여 가을걷이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을 고무추동하기 위한 해설담화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본받아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마식령속도》창조에로 부르는 화선식정치사업은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였다.

리당조직에서는 당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이 붉은기, 표어, 경쟁도표, 이동식속보판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여 가을걷이전투장의 분위기를 부쩍 돋구도록 하였다.

또한 가을걷이전투가 벌어지는 일터마다에 포전방송기재들을 잘 갖추어놓고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여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한주일동안에 강냉이가을을 끌낸데 이어 9일동안에 벼가을을 끌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20일간과 9일간!

대조적인 두 수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받들고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일해나가는 이곳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비상한 자각과 혁신적인 일본새를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리 종 석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기료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평양기료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전 성 남 찍음

평양껌공장창립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껌공장창립 10돐 기념보고회가 23일에 진행되였다.

판계부문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껌공장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창립 10돐을 맞는 공장의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축하문은 평양껌공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현지지도사적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이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나라의 재부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 벌어지던 시기에 껌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할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주체92(2003)년 10월 23일 평양껌공장을 창립해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대소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에 몸소 찾아오시여 인민을 위한 공장으로, 최첨단 껌생산기지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나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수십종의 제품을 보아주시고 질도 높고 포장도 손색이 없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경공업부문에서는 껌공장에서처럼 제품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98(2009)년 2월 18일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평양껌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공장인것만큼 모두 건강하여 일을 잘하기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으며 당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공장은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랑찬 창조와 기적의 연혁을 새겨오면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과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꽃피우는데 공헌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당의 은정을 온 나라 방방곡곡에 전해간다는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해마다 제품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당의 뜻을 불타는 창조열정과 빛나는 로력적위훈으로 받들어온 공장종업원들과 일군들의 고결한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배인 송혜정의 보고에 이어 책임기사 오영기, 로동자 강은혜, 실장 박성순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장이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경공업정책을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며 공장관리운영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양묘장을 잘 꾸려놓고

김형직군에서 양묘장을 잘 꾸려놓고 나무모기르기를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지대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산림조성을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양묘장꾸리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를 안고 양묘장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들끓는 현장에 나간 군의 책임일군들은 당의 수림화, 원림화방침에 따라 자기 단위에서 나무를 심어야 할 면적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나무를 심자면 양묘장의 규모를 어떻게 정하고 로력은 얼마나 필요한가를 따져가며 장악지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군에서는 읍지구에 10정보의 양묘장을 새로 꾸려놓고 여기에 이깔나무, 잣나무, 들메나무, 가래나무, 다름나무를 비롯한 리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고있다.

또한 회전식분무장치를 받아들인것을 비롯하여 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놓고 나무모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수종이 좋은 튼튼한 나무모들을 많이 키워내고있다. 이와 함께 군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필요한 종자확보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양묘장에 1정보의 잔디재배장도 꾸려놓았다.

특파기자 전 철 주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서 중시한 문제

윤전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것처럼 국토관리사업도 옳은 방법론을 찾아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때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수km에 달하는 해안방조제보수공사를 끌내고 대성천을 비롯한 중소하천들을 번듯하게 정리하였으며 군내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는 등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윤전군 일군들의 사업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야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습니다.》

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우선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선후차를 따져가며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내민것이다.

운평, 관해, 학산지구의 해안방조제보수공사를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낸 사실을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가을철국토관리사업을 작전하면서 군에서는 도로와 강하천부문에서 장마철 큰물과 해일로 인한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방대한 공사계획을 수행하자고 보니 제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계획된 날자에 공사를 끌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론의의 초점으로 되였다. 다시 정리해야 할 중소하천이 10여개나 되기때문이였다. 게다가 군에서는 이 기간에 살림집건설과 산림조성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있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널어놓는 식으로 해서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었다.

짧은 기간에 이 공사과제들을 끌내자면 우선 큰 대상중의 하나인 운평, 관해, 학산지구의 해안방조제보수공사를 계획된 날자까지 무조건 끌내야 하였다. 그래야 큰물과 해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계획하였던 다른 사업들도 힘있게 내밀수 있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일군들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별로 담당구간들을 맡겨주고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지펴올려 계획된 날자에 공사를 무조건 끌내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였다.

공사장에 달려나온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집단적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질통과 맞들이로 흙과 돌을 나르면서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은 애국의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성실한 땀을 바쳐갔다.

결린 고리를 제때에 포착하고 본보기를 창조하여 제방보수공사를 힘있게 내민것도 본받을만한 점이다.

해안방조제보수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어느날 군일군들은 대오협동농장이 맡은 구간이 다른 단위에 비해 장석공사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데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알아보니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멀지 않은 곳에 채석장을 꾸려놓고 장석공사에 필요한 막돌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었다.

군일군들은 이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막돌을 해결하는데 력량을 집중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공사속도를 높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3일동안에 운평, 관해, 학산지구의 해안방조제보수공사가 성과적으로 끌나게 되였다.

이렇게 군일군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고 대중을 적극 발동하면서 모든 공사를 작전하고 내민 결과 단동천, 대성천을 비롯한 여러 하천들에 대한 정리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일판을 벌려나간것도 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기풍의 하나이다.

학산, 운하리일대에 있는 2개소의 굽인돌이길에 대한 곡선펴기공사를 국토관리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힘있게 내밀도록 한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사실 처음에 군에서 벌려놓은 일들이 적지 않다보니 미처 이 공사까지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었다. 게다가 이 일을 해제끼자면 길옆에 있는 집채같은 굳은 암반을 까내고 수천㎥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였다.

하지만 군책임일군들은 대담하게 결심하고 돌격대를 조직하여 내밀도록 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국토관리사업이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자기들의 힘과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에서는 동삼리—운전읍사이 토사도로건설과 읍지구 보도블로크깔기 등의 사업도 힘있게 내밀어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실정을 잘 알고 방법론을 찾아 일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갈 때 국토관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정 주 원

온 나라에 더욱 만발하는 정성의 화원

50여년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며 타올랐던 집단적정성의 불길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더욱 세차게 지펴져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수도의 중앙병원들과 지방의 도, 시, 군인민병원의 수많은 의료일군들이 환자치료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증진시킬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무병장수하여 끝없는 행복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의료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2년전 10월 인민보건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전반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우리 시대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 등에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온 나라 의료일군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정성의 불씨를 더욱 깊이 심어주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느때보다 앙양된 열의를 안고 환자치료에 전심하고있는 전국의 의료일군들에게 정성의 거세찬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주체100(2011)년 12월의 애도기간 어버이장군님을 잃은 슬픔에 잠겨 호상을 서는 인민들의 건강이 념려되시여 온갖 조치를 거듭 취해주시였을뿐아니라 지난해 4월에는 수도의 병원들에 은정어린 보약재들과 희귀한 물고기, 과일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에 접한 각지 의료일군들은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였다.

평범한 근로인민들을 위하여 어제는 천만금을 들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고 오늘은 또다시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함없는 은정은 각지 의료일군들에게 인간생명의 기사로서 이 땅에서 살며 일하는 참다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벅차게 안겨주었다. 특히 지난해 3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415번째 세쌍둥이가 태여난 기쁨을 안고 삼가 올린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의 편지와 지난해 4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부를 좌우명으로 삼고 치료예방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갈 마음을 담아 올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군들의 편지에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어린 친필은 온 나라 의료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정성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주었다.

각지 의료일군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지니고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수많은 최중증상태의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소생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군들은 지난해 3월 구급으로 실려들어온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채탄공을 온갖 정성을 다해 살려냈을뿐아니라 그가 탄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많은 생활용품들과 식료품을 마련해주어 그곳 로동계급을 감동시켰다. 평양시제3인민병원 의료집단은 중앙병원 의료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지난해 12월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를 위해 헌신의 자욱을 새겨온 한 과학자의 건강을 회복시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보건성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평양산원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군들은 사경에서 헤매이던 함경북도의 네쌍둥이를 기적적으로 살려냄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우리 시대 보건일군들의 높은 실력과 고상한 풍모, 집단주의위력을 시위하였다.

강원도인민병원과 남포시인민병원, 판교군인민병원의 의료집단은 뜻밖의 일로 사경에 처한 인민군군인들의 소생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려 그들을 짧은 기간에 완쾌시켜 초소에 다시 세웠다. 평안북도위생방역소 의료일군들은 의학과학원 연구사들과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새로운 예방약을 만들어내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관철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각지 의료일군들은 1950년대 화선군의들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현장치료대활동도 활발히 벌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 형상원들에 대한 치료를 전투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해에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연 수백명 로동자들에 대한 검진 및 치료전투를 벌려 기업소의 대보수공사를 기한전에 끝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만유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올해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연 1만 수천명 로동자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어 당이 호소한 강재증산목표를 앞당겨 돌파할 기세드높이 련일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는 그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과 김만유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지난 몇해동안 수많은 의약품과 현대적진단설비들을 가지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달려나가 치료전투를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평안남도인민병원의 안과의료일군들도 도안의 수천명 로동자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및 치료전투를 기동적으로 벌렸으며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은 백암군 덕포지구에서 제대군인안해들의 해산방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지극한 정성에 높은 의학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사경에 처한 환자도 살려낼수 있고 불치의 병도 고칠수 있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말씀을 심장마다에 아로새긴 각지 의료일군들속에서 혁명동지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이 수많이 발휘되였다.

황해남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과 해주의학대학 학생들 수백명은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다가 화상당한 한 병사를 위해 자기의 피부를 바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가 조국보위의 총대를 다시 틀어쥘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같은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이들의 소행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당제1비서의 이름으로 감사를 준다고 하시면서 일심대단결의 화원,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당시대 인간들만이 보여줄수 있는 미덕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평안북도인민병원, 평안북도소아병원, 자강도인민병원, 평원군인민병원의 의료집단도 환자들을 위해 자기의 피부를 떼여 이식함으로써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파시하였다.

김만유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 지난해에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교원, 의료일군들은 환자치료사업에 이바지하게 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림상약물정보봉사체계 1.0》을, 고려의학과학원의 연구사들은 우리 인민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평천고려약공장의 종업원들과 배천광산병원 의료일군들은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성심성의껏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400여명의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이 한날한시에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의료일군들이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였다.

각지 의료일군들은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소행을 그처럼 값높이 여기시며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정성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천만군민의 총진군을 적극 추동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방 경 찬

공화국선수권대회에서

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일 일념안고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체육열풍속에 지금 수도 평양과 함흥, 평성, 사리원 등에서 공화국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공화국선수권대회는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전국의 수많은 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공화국선수권을 보유하기 위해 체육인들이 드높은 열의를 발휘하는 가운데 마라손, 권투, 사격, 유술을 비롯한 수십개 종목의 많은 세부종목경기들이 성과적으로 끝났다.

지금 축구와 력기 등의 경기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빙상호케이와 짧은주로속도빙상경기는 11월에 벌어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선수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겠다는 굳은 각오,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경기에서 평시에 련마한 기술과 전술을 능란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의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보천보배불상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체육경기대회에 이어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에서도 모든 선수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평시에 땀흘려 련마해온 높은 기술들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훌륭한 경기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여러 급으로 나뉘여 수도 평양과 함흥, 사리원, 평성을 비롯한 지방들에서 진행되고있는 축구경기가 련일 성황을 이루고있다.

김일성경기장 등에서 진행되고있는 공화국선수권대회 1급 축구경기에 출전한 남자축구팀들과 녀자축구팀들은 올해에 진행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보천보배불상체육경기대회, 《배불컵》 1급 남자축구경기 등과 맹렬한 훈련을 통하여 더욱 튼튼히 다진 육체, 기술, 전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경기마다에서 훌륭한 장면들을 펼치고 있다.

세계축구발전추세에 맞게 경기들이 더욱 속도화되고 다양한 축구기술과 전술들이 발휘되고 있는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남, 녀축구선수들이 왕성한 투지와 열정에 넘쳐 전인공격과 전인방어, 측면과 반측면에서의 빠른 돌파, 불의적인 역습속공과 대담한 중장거리 차넣기를 비롯한 다양한 전술과 기술로 경기를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남자마라손경기에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체육단의 선수가, 녀자마라손경기에서는 4.25체육단의 선수가 각각 우승하였다.

마라손녀자경기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체육단의 림금희선수가 제2위를, 백혜경선수가 제3위를 쟁취하였다. 이들은 나이가 어린 신진선수들이지만 이번 마라손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들은 훌륭한 경기장면을 펼쳐보임으로써 체육전문가들과 관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체육전문가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체육단의 마라손책임감독 리광철동무의 높은 책임성과 역할에 대하여 찬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4.25국방체육단의 선수들이 사격과 활쏘기종목의 남, 녀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롱구1급경기에서는 4.25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 기관차체육단의 남, 녀롱구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4.25체육단의 남, 녀롱구선수들은 체질 등에 맞는 속공에 의한 먼거리던져넣기, 결합공격과 접근방어 등 다양한 기술과 전술을 능란하게 적용함으로써 우승의 영예를 지녔다.

한편 탁구남자단체전에서는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홰불체육단의 선수들이, 녀자단체전에서는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리명수체육단의 선수들이 순위권에 들었다.

남자복식과 혼성복식경기에서는 압록강체육단의 선수들이, 녀자복식경기에서는 4.25체육단의 선수들이 각각 우승하였다.

탁구개인남자단식경기에서는 4.25체육단의 선수가, 개인녀자단식경기에서는 홰불체육단의 선수가 각각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이밖에도 권투, 레스링, 룩상을 비롯한 많은 종목들에서도 좋은 경기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이는 체육인으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체육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갈 선수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올해의 공화국선수권대회는 더욱 자랑찬 성과로 빛나게 장식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프랑스실업계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3일 알방 융 프랑스《빅토르 쎅갈랜기금》 중국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실업계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이 완화국면에 들어섰던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와 대결에로 끌어가고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자제력도 발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시정책에 한사코 매달리면서 군사적도발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을 짜놓고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조선동해와 남해에서 련속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으며 그 후에는 핵항공모함을 조선서해에 들이밀어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지하핵시험을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들을 조작한데 이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핵전략폭격기들과 핵잠수함들을 끌어들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던 때를 방불케 한다.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공갈과 침략전쟁준비책동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서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조미합의들과 9.19공동성명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고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해 녕변핵시설재가동이 사실이라면 국제적의무와 공약들에 대한 위반이라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조선반도비핵화가 마치 우리의 핵포기인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적목표인 조선반도비핵화는 결코 우리의 일방적인 선핵포기가 아니며 그것은 동시행동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 조선반도를 핵무기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예나 지금이나 행동대 행동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이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

평화와 안정도, 대화도 없는 지금의 조선반도에서 유독 물리적으로 가동되고있는것은 미국의 핵위협공갈과 반공화국제재소동뿐이다.

외부의 핵위협이 가증되는 한 그에 대처할 핵억제력도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디에도 구속될것이 없다.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를 요구하지만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는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끄떡없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평 양

일본신사회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도미야마 에이꼬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신사회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나라찾을 큰 뜻을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이어 그들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참관하였다.

단장은 감상록에 녀성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고있는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현실이다, 참관을 통하여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고 썼다.

대표단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경상유치원 등을 참관하였다.

우리 나라 김은국선수

남자력기 62kg급 끌어올리기 종목에서 금메달 쟁취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뽈스까의 브로쯔와브에서 진행되고있는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계속 성과를 거두고있다.

22일 남자력기 62kg급 끌어올리기종목에 출전한 김은국선수는 순간체기와 정확한 받기로 150kg을 성공시키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추켜올리기종목에서 170kg을 들어올린 그는 종합 320kg으로 2위를 함으로써 은메달을 받았다.

우리 나라와 체스꼬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과 체스꼬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한

사 진 전 시 회 개 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체스꼬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과 체스꼬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체스꼬의 문화유적들》이 23일 평양대외문화교류중심에서 개막되였다.

개막식에는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두샨 슈뜨라우흐 주조체스꼬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체스꼬의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고창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3일 천리마구역 조선로씨야친선 고창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자각을 안고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을 도와 벼탈곡을 하였다.

쉴참에 그들은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고 농장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농장원들이 올해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조선중앙통신】

프랑스실업계대표단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프랑스실업계대표단 분수물놀이장 참관

알방 융 프랑스 《빅토르 쎅갈랜기금》 중국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실업계대표단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전승기념탑 《승리》 상앞에서 그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조국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훈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판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평양남새과학연구소, 분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으며 모란봉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빼루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빼루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빼루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김학철동지가 임명되였다.

인도네시아외무상일행 귀국

라덴 모함마드 마르띠 물리아나 나딸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상과 일행이 23일 귀국하였다.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나스리 구스따만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의주시 일군들과 근로자들

영예군인들의 친혈육이 되여

신의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끝없이 꽃펴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민보안부 아래단위 로동자 림경희동무는 신의주시 해방동에서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 리경식로인을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주고있어 동주민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신의주역전광장에서 영예군인 리경식로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림경희동무는 남편과 함께 그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다.

처녀시절 한마을에서 사는 전쟁로병을 친딸이 된 심정으로 위해주던 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피흘려 싸운 로병들을 도와주는것을 새 세대의 응당한 본분으로 새겨안고 영예군인 리경식로인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명절을 맞을 때마다 그는 친자식된 심정으로 영예군인의 가정을 찾아 보약과 건강식품들을 안겨주며 리경식로인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그리고 가정생활형편도 알아보고 그의 생활을 적극 도와주어 그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하고있다.

신의주시 청송동에서 사는 전춘실동무는 관문동의 특류영예군인 박명순동무를 진심으로 도와주어 주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군복을 입고 총대로 당을 받들어온 특류영예군인이며 제대군관인 박명순동무에 대하여 알게 된 그는 영예군인을 진심으로 도와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기업소종업원들과 함께 영예군인의 가정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친딸이 된 심정으로 도와주어 박명순동무가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있다.

전춘실동무의 소행에 감동된 박명순동무와 그의 가족들은 영예군인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당에 대를 이어 충정을 다 바쳐갈 결의를 다지고있다.

신의주시의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시안의 영예군인들을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주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끝없이 꽃피워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평함

박근혜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내들고 집권한지 8개월이 된다.

그는 처음에 자기의 대북정책이 리명박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제3의 길》이라고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이 어떤것이며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우리 최고존엄에 대한 비방중상과 체제대결광란은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 북침핵전쟁책동과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마련된 대화평화협상국면은 깨지고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있다.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허울뿐이고 결국은 대결을 추구하는 모략각본이라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원래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가 처음 내놓은 말도 아니고 동서랭전시기 사회주의권을 무장해제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이 만든 《헬싱키프로세스》에서 따온 말이다.

박근혜는 그것을 모방하여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을 달아 2011년에 미국잡지 《포린 어페어즈》에 처음 실었으며 그후 미국이 주도하는 《핵안보정상회의》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자기의 대북립장으로 발표하고 올해 5월 미국행각을 통해 상전의 최종인준을 받았다.

지금까지 력대 괴뢰통치배들이 저마다 형형색색의 대북정책간판을 들고나왔지만 우리 말과 외래어가 뒤섞여 잡탕말로 된 《신뢰프로세스》라는 피이한 간판을 내들기는 처음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은 한마디로 《신뢰》의 간판을 내들고 북을 변화시켜 핵포기에로 유도하며 북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변화를 하면 그 무슨 《경제협력》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와 결탁하여 체제대결과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으로서 리명박역도가 추구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신뢰》라는 허울좋은 보자기로 감싼 매우 간교하고 흉악한 반통일대결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정책이다.

본래 《신뢰》라는 말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서 예로부터 사람들사이에서는 물론 국가정치와 사회활동 및 대외관계에서 신뢰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북과 남은 일찌기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으로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비방중상하지 말며 대결을 추구하지 않을데 대해 확약하였다.

이것은 신뢰조성의 첫걸음이며 대전제이다.

박근혜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처음 꺼내들었을 때 말로나마 자기가 집권하면 《신뢰구축》과 대화를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것이라고 하였으며 《대선》후보시절에는 북남공동선언을 《인정》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던 일도 있다.

그러나 취임의 막을 올리기 바쁘게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결코 유화책이 아니》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군사적억지력을 바탕으로 한것》이라느니, 《북의 도발에 대해 한미공조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느니 하면서 대결적정체를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그런가 하면 외교안보팀을 악명높은 군부깡패출신의 대결광신자들로 꾸리고 《군부의 판단과 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북남관계를 전적으로 내맡기여 대결과 전쟁책동의 롱락물로 되게 만들었다.

괴뢰보수패당은 《북에 끌려가는 대화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칙고수》를 제창하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당국회담을 파탄시켰을뿐아니라 그 무슨 《인질사태》와 《미군특공대작전》을 운운하며 선임자도 감히 엄두를 못내던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류례없는 《종북척결》소동과 《마녀사냥》으로 남조선 련북통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그 존재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날뛰고 무엄하게도 북남수뇌상봉 담화록까지 공개하는 란동을 벌려 그 력사적의의를 말살하려고 기승을 부리고있는것도 현 《정권》이며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10.4선언관련조항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행위를 감행한것도 다름아닌 현 《정권》이다.

간판은 그 누구를 유혹해보려고 《신뢰》를 내걸었으나 온통 누구를 《용납하지 않겠다.》, 《원칙을 지키겠다.》, 《응징하겠다.》는 대결적폭언만 쏟아내고있다.

오죽했으면 미국상전까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예상외로 강경한데 놀랐다.》고 하면서 박근혜를 내놓고 추어주었겠는가.

하기에 지금 남조선각계층은 《불신프로세스》, 《대결프로세스》, 《실망프로세스》라고 격분에 차서 야유, 조소하고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반공화국전쟁정책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침핵전쟁책동이 중지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철수하여야 한다.

박근혜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내들면서 《북핵포기가 전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반공화국핵소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그는 입만 열면 《북핵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느니, 《북이 핵개발로는 아무것도 얻을수 없다.》느니, 《병행로선은 불가능한 환상》이라느니 하면서 《북이 핵을 포기할 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제대로 추진될수 있다.》고 공언하였을뿐아니라 《북핵포기》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국제공조를 구걸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신뢰프로세스》의 흉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괴뢰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우두머리들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비핵화를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북핵불용이 원칙》이고 《북의 비핵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있다.》고 저들의 검은 속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은 미국과 함께 북침핵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미핵항공모함 《니미쯔》호와 《죠지 워싱톤》호, 미핵잠수함 《샤이엔》호, 《B-52》전략폭격기와 《B-2》스텔스전략폭격기, 《F-22》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최신미국핵전쟁장비들과 타격수단들이 더 빈번히, 무시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어와 돌아치면서 핵불장난을 벌림으로써 이 지역은 그야말로 미국의 핵무기전시장, 활무대로 되여버렸다.

리명박역도가 미국의 핵우산제공을 확약하는 《확장된 억제력》을 구걸하였다면 박근혜는 미본토핵무력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을 채택하고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구축에 전면 가담하는데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서해상에서의 국지전을 미군이 참가하는 전면전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것을 새로 작성해놓고 그 무슨 《원점과 지원 및 지휘세력》타격이니 뭐니 하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박근혜가 집권한 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은 최절정에 달하였다.

이 땅에서 핵전쟁이 억제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강위력한 핵무력을 보유한데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그 일당이 《신뢰》의 미명하에 우리의 핵과 지어 병진로선까지 결고들며 《페기》요 뭐요 하는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어떻게 하나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남관계개선을 전면부정하고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정책이다.

북남사이에 신뢰를 이룩하자면 호상 존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여야 하며 불신의 근원으로 되는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은 력대적으로 썩고 부패한 미국식자본주의를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로 분식하면서 그에 의한 제도통일을 추구해왔다.

리명박역도는 그 누구의 《개혁, 개방》을 대북정책으로 내들고 《통일이 한밤중에 도적처럼 올수 있다.》고 망발하면서 허망한 체제대결개꿈을 꾸다가 내외의 비난만 받았다.

박근혜는 그에서 응당 교훈을 찾을 대신 말끌마다 《옳바른 선택》이니, 《변화》니 하면서 체제대결흉심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리명박역도가 그 무슨 《급변사태》망상에 사로잡혀 《기다리는 전략》에 매달려왔다면 박근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북의 변화를 기다리지만 말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고있다.

괴뢰관계자들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기본방점은 《선 변화》이며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이라고 떠들어대고있는가 하면 《신뢰프로세스》가 북에 대한 《압박》과 《유인》의 《두길전략》이라는것을 꺼리낌없이 줴치고있다.

괴뢰패당이 새로 작성발표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는 《북의 변화유도》를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으로 밝히고 그를 위해 반공화국압박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것을 쪼아박아넣고있다.

괴뢰패당의 《변화》타령은 우리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포기하게 하고 저들처럼 미국식 썩어빠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라는것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최고존엄, 우리의 제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극악한 도발이다.

옳바른 선택을 하고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할것은 다름아닌 남조선괴뢰당국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끌장내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현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만은 장장 68년간이나 미국의 식민지지배하에 놓여있으며 괴뢰당국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상전에 아부굴종하고있다.

지금도 《수도》라고 하는 서울한복판에 미군사기지가 뻐젓이 둥지를 틀고있고 미국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가 철저히 예속된 상태로 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더우기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도루 섬겨바치겠다고 앙탈을 부리고 수십년전의 《유신》독재를 되살리려고 발광하고있는 현 남조선당국이야말로 변화의 주되는 대상이다.

모든 사실들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이 실지로 신뢰를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것이 아니라 불신을 더욱 더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극히 불순한 모략각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자체가 미국이 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에로 몰아간 《헬싱키프로세스》에서 재미를 보고 그것을 조선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괴뢰들에게 쥐여준 북침각본으로서 철두철미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과 대아시아전략의 산물이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돌리고 반미자주화운동의 표대이고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해보려 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친미보수《정권》을 유지하고 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저들의 지배하에 넣기 위한 책동에 괴뢰들을 앞잡이로 써먹기 위해 새로운 침략교리로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내들게 한것이다.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신뢰》를 떠드는것은 공허한 빈말과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고 높이 받드는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박근혜일당은 《신뢰》에 대해 입에 올릴 체면도 없다.

우리 민족이 바라는것은 《신뢰프로세스》요 뭐요 하는 어설픈 언어유희가 아니라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하루빨리 실천해나가는것이다.

공동선언리행에 신뢰도 있고 관계개선도 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번영도 있다.

박근혜괴뢰패당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친미사대적관념에서 벗어나 선택을 바로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변화할 때가 되였다.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외세에 의존하여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의 불행만을 자초할뿐이다.

박근혜가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를 쌓고 관계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동족대결정책을 포기하고 전쟁책동을 걷어치우며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손잡고 나갈것이다.

박근혜는 이제라도 옳바른 리성을 가지고 우리의 충고와 호소를 바로 새겨들어야 한다.

론 평 원

노래와 함께 꽃피는 생활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정무원들을 만나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풍만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들끓는 생활과 투쟁이 있다.》

우리의 정권기관들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그래서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누구보다 많은 일감을 안고 바삐 뛴다. 하지만 사업이 분망한 속에서도 이들이 놓치지 않는것이 있었다. 집단안에 혁명적정서와 랑만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사업이였다.

《메마른 땅에 알찬 열매가 주렁질수 없는것처럼 랑만과 정서가 없는 생활에서는 높은 사업성과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노래경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것을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도인민위원회 초급당일군의 이 말을 우리는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하였던 이곳 정무원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더 깊이 리해하게 되였다.

이들이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것은 올해 봄, 모내기가 금방 끝났을 때였다. 모내기를 마무리하였지만 허리띠를 풀어놓을새 없었다. 잇달아 김매기전투를 해야 하기때문이였다. 더구나 황해남도에서는 뭐니뭐니해도 농사가 첫째였다.

《노래경연에 참가할 준비를 하라는 분공을 받았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것도 독창도 아니고 중창을 말입니다. 누구라 할것없이 술한 일감을 안고 바삐 뛰는 속에 10명의 부원, 책임부원들이 중창조에 망라되였습니다.》

부원 리명규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책임부원 박명동동무는 그때 자기는 사업이 몹시 바쁜 상태여서 다른 사람을 선발해줄것을 제기했지만 당조직에서는 노래경연이라고 신비하게 생각할것은 없다고 하면서 이미전부터 해오는 군중문화예술활동을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신심을 주었다고 말하였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중문화사업도 깜빠니야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도인민위원회에는 지난 10여년동안 이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해온 군중문화예술활동의 실태를 엿볼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록장이 있었다. 명절과 주요기념일때마다 부서들을 단위로 하여 진행한 예술공연종목들을 기록한 책의 두께는 퍼그나 되였다.

《노래경연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중창조에는 필경 이전에 전문예술단체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있는것 같다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나날에 성악기량도 련마하고 악기도 배운 사람들이랍니다.》

부원 박선희동무가 자랑삼아 하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회적인 예술공연이 진행될 때에는 정말 볼만 하다고, 사업이 바쁜 국장, 처장들도 짬만 생기면 노래련습을 하고 다른 부서보다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집단안에 보다 큰 활력이 넘치게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도인민위원회 정무원들에게 있어서 10명의 부원, 책임부원들로 구성된 중창조가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사무원부류)에 참가하게 된다는 소식은 큰 화제거리로 되였다. 특히 중창조가 어떤 노래를 선정하여 부르도록 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모두의 관심사였다.

정무원들속에서 많은 노래제목들이 쏟아져나왔다.

제목들은 각이하였지만 도의 특성이 살아나는 노래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하였다. 그런 속에 선정된 노래가 바로 이곳 정무원중창조가 준결승무대에 올린 노래 《벼가을하러 갈 때》와 결승경연무대에서 부른 노래 《사랑은 내 조국에 증오는 원쑤에게》였다. 제목만 들어도 잘 알수 있는것처럼 두 노래가 다 이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그중에서도 황해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였던 리룡진동지를 원형으로 하는 텔레비죤련속극 《붉은 흙》의 주제가는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정무원들의 주제가라고 할만큼 이들이 사랑하며 즐겨부르는 노래이다.

《결승경연때였습니다. 우리 중창이 끝나자 판람석에서는 요란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황해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원형으로 하는 텔레비죤련속극의 주제가를 실지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정무원들이 부르니 정말 감흥이 크더라고, 노래를 감동깊이 잘 들었다는것이였습니다.》

책임부원 김용구동무가 그때의 심정이 되살아나는지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생활속에서 체험하고 매일, 매 시각 심장으로 느낀것을 그대로 무대우에 펼쳤으니 그 여운이 어찌 크지 않았으랴.

《노래는 10명이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도인민위원회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합창과도 같은것입니다. 모두가 텔레비죤으로 방영되는 경연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을 조이였고 1등을 쟁취한 후에는 더욱 사기충천하여 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거두고있으니 말입니다.》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의 이 말은 오래도록 우리 귀전에 맴돌았다.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사무원부류) 중창종목에서의 1등은 바로 혁명적랑만과 기백이 차넘치는 이곳 집단이 쟁취한 영예이며 모두의 자랑이라는 생각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본사기자 방 성 화

우리 식이 제일

얼마전 수도의 교외에 위치한 어느 한 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작업의 열참인듯 한자리에 빙 둘러앉은 농장원들이 즐거운 오락회를 하고있었다.

우리 인민 누구나 즐겨부르는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를 절절하게 부르는 청춘남녀도 있었고 서정시 《어머니》를 랑송하는 녀성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깨춤까지 춰가며 흥그러운 민요가락을 뽑는 중년의 농장원도 있었다. 구수한 낟알향기가 풍겨오는 가을날의 들판에 펼쳐진 오락회의 풍경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활짝 꽃펴난 사회이다.

노래를 불러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흘러넘치는 노래를 즐겨부르며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며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긍지높은 민족이다. 하지만 그 긍지와 자부심도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 빛내여주는 주체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꽃펴날수 있다.

《남이 사는 내 나라》, 이것은 남조선의 한 력사학자가 썩어빠진 양키문화의 탁류속에서 시들어가는 남조선사회의 현실을 개탄하며 쓴 글의 제목이다.

서양풍, 왜풍에 휘말려 단일민족의 혈통이 흐려지고 민족문화와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는 남조선사회, 사람들이 이색적인 생활풍조에 심히 오염되여 우수한 우리 말과 글까지 버림을 받고있는 이런 사회를 두고 어떻게 민족의 넋이 살아있는 사회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의 맥이 높뛰고 광명한 래일이 기약되여있는 이북이야말로 민족의 정기와 얼이 살아있고 약동하는 진정한 내 나라이다!》

우리 공화국을 《내 나라》, 《내 조국》이라고 웨치는 남녘겨레들의 이 심장의 토로에는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진리가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학생소년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자기의 예술적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본사기자 김 철 우 찍음

은반우의 랑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누릴수 있는 가장 값높고 보람찬 생활입니다.》

며칠전 저녁무렵 우리는 인민야외빙상장을 찾았다.

빙상장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흥성거리고있었다.

이곳 보급원 강영희동무의 말에 의하면 인민야외빙상장이 준공한지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스케트를 타는 수준이 전문선수들을 거의 따라서는 손님들이 무척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스케트를 타는 사람들속에서 아름다운 률동속에 여러가지 재주를 펼쳐보이는 청년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휘거스케트를 타고 앞으로, 뒤로 재치있게 지쳐나가는 처녀들이며 조약, 회전 등 휘거선수들이 수행하는 기교동작도 어렵지 않게 펼쳐보이는 청년,

속도빙상스케트를 타고 힘차게 팔을 저으며 비호같이 달리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휴식을 하려는듯 은반을 나서는 사람들속에 아름다운 률동으로 눈길을 끌었던 처녀가 보였다. 평천구역 봉남동에 사는 리금주동무였다.

그에게 스케트타기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전문가에게서 배운적도 없고 또 어릴 때도 스케트를 얼마 타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인민야외빙상장이 생겨서부터 퇴근길에 자주 들렸을뿐입니다.》

며들썩 하는 소리에 돌아다보니 사람들이 입을 싸쥐면서 웃음을 참고있었는데 그들의 어깨너머로 50대쯤 돼보이는 사람이 휘거스케트를 신고 빙상장한복판에 황소눈을 하고 떡 버티고 서있는것이 보이였다.

앞으로 나가려다가는 뒤로 넘어질듯 휘청하고 허리를 펴다가는 비칠하며 다시 허리굽히기를 몇번…

그 사나이는 끝내 보급원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그가 보급원에게 하는 말이 또한 걸작이였다.

《보급원동무, 내 이제 며칠내로 나를 보고 웃는 저 청년들 못지 않게 휘거스케트를 씽씽 탈테니 좀 도와주시오. 이런 희한한 빙상장에 오고보니 휘거를 배워두지 못한게 정말 후회됩니다. 내 이제부터 매일 퇴근때마다 들리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살며 일하는 보람찬 세대입니다.》

얼마전 당창건기념탑앞을 지나던 우리는 걸음을 멈추었다. 결혼식을 하는 한쌍의 부부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것이다. 신랑, 신부는 청년돌격대제복차림이였다.

청년돌격대제복을 입고 결혼기념사진을 찍는 그들을 보느라니 몇달전 세포등판개간전투장에서 만났던 한 신혼부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세포등판개간전투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인 리상수, 홍충심동무들이였다.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된것은 세포등판개간전투장에서 진행된 그들의 결혼식에서였다. 그들은 청춘의 사랑도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길에서 꽃피울 결의를 안고 한날한시에 돌격대에 입대하였고 현장에서 돌격대원들의 축하속에 결혼식도 하게 되였다.

소박한 결혼상을 차리고 돌격대원들이 모여앉아 노래도 부르고 꽃다발도 안겨주며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를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뜻깊은 결혼기념사진

리상수동무는 대자연개조전투장에서 동지들의 축복을 받은 결혼식날을 한생 잊지 않고 추억하겠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그들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날 신부 홍충심동무는 우리에게 결혼기념사진은 세포등판에서 찍은 두번째 기념사진이라고 하면서 돌격대에 입대하던 날 리상수동무와 함께 돌격대입대를 기념하여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위훈의 약속이 깃든 돌격대입대기념사진을 가슴에 품고 세포등판개간전투의 날과 달을 위훈으로 빛내여왔다고 한다.

며칠후 우리는 그들의 결혼기념사진을 세포등판개간전투장의 전투속보에서 보게 되였는데 사진과 함께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보람찬 대자연개조전투장에서 청춘시절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그들에 대한 기사도 실려있었다.

아마 그들은 오늘도 당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시절을 값있게 수놓아가고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당창건기념탑을 배경으로 돌격대동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신랑, 신부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본사기자 오 은 별

순결한 도덕의리심의 발현

황해북도은행 일군들과 종업원들

얼마전 본사편집국에 사리원시에서 사는 한 공로자로부터 편지가 왔다.

전세대들에 대한 순결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고있는 황해북도은행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의 량심과 도덕의리심은 실천행동에서 표현되며 검증됩니다.》

10여년전 어느해 12월이였다. 오래전에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간 한 공로자로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일터를 떠난 때로부터 오늘까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는 오랜 당원인 전세대 공로자, 그의 집을 방문하는것으로 자기들의 할바를 다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일군의 마음속에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의 숭고한 도덕의리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이 되새겨졌다.

—오랜 공로자들과의 사업을 그들이 자신의 한생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도록 하고 새 세대들이 이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를 따라배우도록 하는 좋은 계기로 되게 하자.

이렇게 되여 은행에서는 해마다 뜻깊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하여 명절과 기념일때마다 오랜 공로자들과의 상봉모임을 조직하게 되였다.

이러한 과정은 새 세대 종업원들이 전세대 공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뜻깊은 기념일마다 은행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공로자들의 투쟁내용도 소개해주고 준비한 예술공연도 보여주었으며 그들과 유희오락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게 조직하였다.

이런 계기때마다 전세대 공로자들은 새 세대 종업원들에게 자기들의 몫까지 합쳐 높은 사업실적으로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갈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새 세대 종업원들은 전세대들의 뒤를 이어 높은 사업실적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갈 결의를 다지였고 명절날, 기념일들에는 보약들을 마련해가지고 오랜 공로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오늘도 은행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랜 공로자들을 존경하고 위해주는 순결한 도덕의리심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선군조선을 강성번영의 한길로 이끄는 강위력한 당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8돐과 《ㄷ.ㄷ》결성 87돐에 즈음하여 인디아, 이란, 민주꽁고, 기네, 뷰니지에서 4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강연회, 집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인디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청년소조 위원장 발조르 싱 차우한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 된것은 당을 창건하고 령도하여오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께서 지니시였던 투철한 인민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뜻을 이어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고 계신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데 지향되고있다.

민주꽁고청년주체사상연구소 조 위원장 은젬바 양가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하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령도의 첫 시기부터 전당을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다지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으며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시였다.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김정은제1비서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승장구하는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기네 꼬나크리시 알마미아지구 1호건설장 현장책임자 쑬레이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로 《ㄷ.ㄷ》에서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ㄷ.ㄷ》의 강령은 조선로동당 강령의 기초로, 《ㄷ.ㄷ》의 리념은 당건설과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뷰니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68돐과 《ㄷ.ㄷ》결성 87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 인디아, 기네에서 7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토론회들에는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인디아선군정치연구소조,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주체문학사상연구회, 대통령부, 꼬나크리주체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 꼰쓰딴띤 로따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승리의 력사는 세계 진보적정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교과서이다.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은 김정은제1비서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인디아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싸드나 하리쉬는 10월 8일은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6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를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발전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성명,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6돐과 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마쟈르로동당이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조선혁명에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와 평화, 사회주의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이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쌓으신 불멸의 공적중의 하나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라고 확신한다.

※ ※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수리아, 파키스탄인사가 9일과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싸베르 발룰은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10월 10일은 조선인민과 함께 진보적인류가 뜻깊게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온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여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각하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현시대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파키스탄주체연구회 회장 버카트 울라는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 잡지 특집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잡지가 6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나호드낀스끼 라보치》는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자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도 령도자도 있다는것,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정치철학이며 생의 좌우명이다.

김정은동지께서 수놓아가시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은 공장과 농촌, 마을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방방곡곡에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일념에 넘쳐있다.

김정은동지를 모시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으로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들인 《렘취취》, 《마르 12》, 우크라이나인터네트신문 《오벡찌브나야 가제따》, 네팔신문 《고르카 엑스프레스》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 등 제목의 글들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력사를 소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8일과 10일 수리아신문들이 특집하였다.

《앗 누르》는 《조선로동당—투쟁의 68년》이라는 표제밑에 《조선로동당》,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 등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창건하고 령도하여오신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대중의 당이라고 하면서 당의 성격과 임무 등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지난 세기 말엽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이러한 엄혹한 시기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정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사상과 령도, 풍모와 인덕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필승의 신심드높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알 사우라》, 《알 바아스》도 위대한 선군령장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수도 없이 백승의 자욱만을 새겨온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력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신문들은 오늘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각하의 시대에 조선인민은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블레찐 발행

블레찐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민주꽁고공산당,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가 최근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김일성》,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김정일》, 《김정은제1비서》 등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블레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조선혁명을 령도하는 정치적참모부이다.

지난 68년간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조선로동당을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시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언제나 백승만을 떨쳐갈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에서 7일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블레찐을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로숙하고 세련된 불패의 당, 어머니당으로 세인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라

빼루정당, 단체 공동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지지하여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빼루민족독립운동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빼루위원회가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침략과 전쟁의 피수인 미제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엄중한 대결분위기가 조성되였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먼저 비핵화를 시작하여야 대화에 나서며 불가침조약도 체결할것이라는 강도적론리를 들고나왔다.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은 철두철미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하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위협소동을 끊임없이 벌려놓은데 있다.

조선의 핵보유는 미제와 그 추구들의 침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정당방위적인 조치로 된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 조미판계개선을 바란다면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무력과 핵무기를 당장 철거하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든 제재를 즉시 철회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여야 할것이다.

빼루의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반제자주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제23차 이베로-아메리카수뇌자회의 진행

제23차 이베로-아메리카수뇌자회의가 18일과 19일 빠나마의 수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이베로-아메리카지역 나라 지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빈궁을 청산하고 기술적차이를 줄이며 통합과 발전을 위해 나라들사이에 정치적대화와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회의끝에 최종선언과 결의가 채택되였다.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로씨야가 18일 씨비리의 동부지역에서 원유채취를 공동으로 진행할데 관한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같은 날 남아프리카와 뽈스까는 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건설, 운수 등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디아 미국 선원들을 체포

인디아정부가 18일 타밀 나두주의 한 항구에 억류되여있던 미국선박의 선원 35명을 전부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배에서 30자루의 총과 5 000여발의 탄약이 적발몰수되였다.

미국선원들은 비법적으로 무기를 나른것으로 하여 현재 심문을 받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농업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동할데 대해 언급

브라질대통령 딜마 바나 로우쎄프가 17일 농업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동할 정부의 계획에 대해 언급하였다.

국가앞에는 재부를 창조하고 분배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정부가 환경보호에 유익한 농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실현에 많은 자금을 돌릴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기농법에 의한 식량생산에 힘을 넣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 비난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드 아빠스가 18일 도이췰란드방문 과정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올해 상반년에 요르단강서안지역과 동부꾸드스에서 유태인 살림집건설이 대폭 확대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로 락인하였다.

정착촌확장책동이 팔레스티나-이스라엘평화회담의 주되는 장애물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정착촌건설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사회단체 정부의 핵무기현대화계획 비평

미국의 사회단체인 《우려하는 과학자동맹》이 17일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핵무기현대화 계획을 비평하였다.

보고서는 미행정부가 앞으로 25년간 600억US$를 들여 미국의 핵무기고를 현대화하려는 계획은 잘못된것이며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며 신형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과는 어긋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에짚트신문 미국의 압력에 맞설것을 호소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가 18일 미국의 압력에 맞설것을 호소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최근 미국이 원조동결 조치로 에짚트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있는 사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에짚트는 미국의 도발적인 압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원조는 선사품이 아니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에짚트를 위협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오산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의 티베트자치구에서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자치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현재까지 약 10만명에 달하는 농촌주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였다.

꾸바에서

꾸바에서 사탕수수부산물을 리용한 전력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16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지금 꾸바의 모든 사탕가공공장들이 사탕수수부산물을 리용하여 생산한 전력으로 공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으며 남는 전기는 국가전력망에 보내주고있다 한다.

현재 사탕수수부산물을 리용한 전력생산량은 전국적인 대용에네르기를 리용한 전력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정부가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17일 이 나라 농업성 부상은 정부가 올해부터 흰쌀을 수입하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

그것은 흰쌀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것으로 예견되는것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8월에 천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증대되였다.

18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가 이에 대해 밝혔다.

우간다에서

우간다에서 캄팔라에 국제비행장을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300ha의 부지에 건설되는 이 비행장에 1.8km 길이의 활주로 등이 꾸려지게 된다.

남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정부가 가우탱주의 고속철도를 확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에 따라 140km의 구간에 고속철도가 새로 건설되게 되는데 지하와 지상구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8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모잠비끄에서

모잠비끄에서 떼떼주에 국립공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35만 5 850여ha의 면적에 건설되게 되는 국립공원은 코끼리, 서우, 사자를 비롯한 동물들에게 서식터를 마련해주는 등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산불피해 확대

오스트랄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 최근 산불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00여개소에서 일어난 산불로 약 5만ha의 산림이 타버리고 수백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으며 연기와 재로 대기가 심히 오염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유엔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오늘은 유엔의 날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 유엔이 창립된 때로부터 어느덧 68년이 되였다.

지난 기간 유엔은 자기의 사명과 목적에 따라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성원국들의 사회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힘의 정책에 의거하여 제멋대로 날치면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유엔을 우롱하는 일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침략하는데 유엔의 간판을 적지 않게 써먹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은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행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면서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결정을 강압채택하기도 하였다. 유엔의 력사에는 오점이 남게 되였다.

유엔의 창립과 더불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은 세기가 바뀌고 새 세기 첫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국제판계에서는 의연히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인권보호》 등의 구실밑에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고있다. 여기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악용되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세력간, 나라들사이의 대결이 지속되고 무장충돌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이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유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있다.

오늘의 국제적환경은 유엔앞에 많은 과제를 제기하고있다. 유엔이 세계평화보장을 주요사명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하자면 자기의 활동에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유엔헌장을 유린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판계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개별적국가의 강권과 전횡이 견제되여야 하며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국가들사이의 동등하고 공정한 판계가 맺어져야 한다.

유엔무대에서 인권문제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이 종식되여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일부 나라들의 정치적목적과 리해판계 그리고 서방식가치판에 따라 개별적나라들의 인권상황이 문제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며 국가들사이의 협조에 기초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크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보다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여 기구가 인류의 념원에 맞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유엔개혁의 핵심인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리사회의 활동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구성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주요국제문제해결에서 모든 성원국들의 총의를 모으는 유엔총회의 최종결정권이 보장되여야 하며 특히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응당 총회의 승인하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특정국가의 전략적리해판계에 녹아나는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기구가 지난 시기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잘못 취급한 문제들을 바로잡는것이다. 앞으로 유엔이 진보적인류의 기대에 맞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나간다면 많은 복잡한 국제적문제들이 해결되고 기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유엔성원국으로서 자기 할바를 성실히 실행하여왔다. 이 과정을 통하여 유엔의 활동에 기여하였다.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대외정책적리념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성원국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며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이다.

본사기자

극도에 이른 미국의 주권침해행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주권침해행위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리비아정부와 사전토의도 없이 그 나라 수도인 타라불스에 해군특수부대를 들이밀어 《알 카에다 고위인사 체포작전》이라는것을 단행하였다. 《최정예》를 자랑하는 특수부대와 전투지원직승기까지 동원하여 미국이 체포한 사람은 한 리비아인이다. 미국은 15년전에 그가 케니아와 탄자니아주재 미국대사관들에 대한 대규모폭탄테로를 주도하였다고 하면서 체포한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1998년 8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와 케니아주재 미국대사관들에 대한 폭탄공격사건이 있었다. 이 폭탄공격으로 250여명이 죽고 5 00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미국인들과 현지주민들이 폭탄공격행위의 희생물이 되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은 《테로분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여 징벌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미국은 폭탄공격사건의 주범을 리비아인으로 점찍고 그를 잡기 위해 많은 현상금을 내걸었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에 그를 잡겠다고 리비아땅에 그것도 수도에 제 마음대로 무력을 들이밀고 군사작전을 벌린것이다. 이것은 리비아의 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행위이며 그 나라 정부와 인민의 존엄에 대한 무시이고 우롱이다.

현세기에 들어와 《반테로전》을 벌려놓은 미국은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의 령토, 령공, 령해에서 해당 나라들의 승인도 받지 않고 특수작전, 무인기공습과 같은 군사작전들을 계속 벌려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리비아에서 감행한 이번 체포작전은 미국의 주권침해행위가 나날이 확대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있다.

미국은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일부 국가수반들과 정부대표들의 사증발급을 제멋대로 거부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특권을 무시하는 망동도 부렸다. 유엔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한 수단대통령과 베네수엘라대표단의 사증발급을 이러저러한 구실로 거부해나선것, 유엔총회에 참가하고 귀국하는 짐바브웨외무상의 외교특권을 무시한것이 그 단적실례이다.

미지배층은 유엔우에 미국을 올려놓고 호통질하면서 세계를 제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미국집권자가 대국민담화라는데서 미국은 특수한 나라이며 다른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공공연히 줴쳤다. 미국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것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였던 헬름즈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한 연설에서 유엔은 《미국의 효과적인 외교도구》로 되여야 하고 미국의 국내법은 국제법우에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행동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다고 떠벌인바 있다.

이것은 미국이 자기의 제국주의적본성을 다시한번 스스로 드러낸것으로서 그 오만성과 철면피성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세계의 일극화를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불법무도한 처사는 지금 국제사회의 격렬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리비아정부는 미군의 이번 기습작전을 자국의 승인이 없이 단행된 랍치행위로,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주권침해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지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단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은 유엔의 주인이 아니다, 이라크전쟁을 도발하는 등 대량살륙만행을 저지른 진짜 전범국은 미국이다, 유엔본부를 미국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비난과 항의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웰남 하노이종합대학 부총장은 미국집권자의 대국민담화를 비난하면서 국제판계에서는 특수한 나라가 없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령토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앞에서 평등하며 국제문제해결에서 똑같은 발언권을 가지고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그 어떤 개별적인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계를 바라고있다. 미국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일극세계화망상에서 깨여나 더는 강권과 전횡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김철룡

새형의 휴대용 물정화장치 개발

국제연구그루빠가 최근 휴대용물정화장치를 내놓았다.

장치의 한쪽으로 부어넣은 오수는 깨끗한 먹는물이 되여 다른쪽으로 나온다. 충전할수 있는 값눅은 이 장치의 효과는 현재의 려과방법보다 우월하다.

장치속에는 플라즈마처리공정을 거친 탄소나노판으로 된 물정화강화막이 들어있는데 이 막은 물속의 소금기와 기타 오염물질이온을 동시에 제거할수 있다.

새로운 려과막이 효과를 낼수 있는것은 플라즈마처리를 한 탄소나노판의 독특한 성능때문이라고 한다.

파리를 없앨수 있는 오리기르기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돼지, 소우리안에서 오리를 기르면 여러가지 질병을 퍼뜨리는 집파리를 효과적으로 없앨수 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4~5마리의 사향오리를 놓아기르는 돼지우리와 오리를 넣지 않은 돼지우리를 비교해본 결과 오리를 놓아기르는 돼지우리에서는 집파리수가 80~90% 줄어들었다. 특히 암오리의 《작업효률》이 수오리보다 3배 높았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31166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